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마음 세계는 바람 세계다.
2. 마음 세계는 끌려다니는 세계다.
3. 혼적 세계는 끌고 다니는 세계다.
4. 마음 세계는 변화무쌍하다.
5. 마음 세계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세계다.
6. 혼적 단계만 들어가도 안전하다.
7. 혼적 세계에서는 보고 판단하는 것이 차원이 높아서 어른 같다.
8. 육 - 마음 - 혼 - 영의 세계다.
9. 육은 1차원, 마음은 2차원, 혼은 3차원, 영은 4차원 단계다.
10. ‘육’은 세상에 붙어살고, ‘마음’도 세상에서 육이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산다. ‘혼’은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육이 마음먹고 행해도 따라가지 않고, 저울에 달아 보고 자로 재 보고 판단하고 행한다. 고로 혼적 단계에서는 살아야 된다.
11. 혼적 단계에서 살아도 주님과 통할 수 있다. 육적 마음 세계는 차원이 낮아서 주님과 안 통한다.
12. 마음 단계는 육신 쓰고 육에 속해 살기에 변화무쌍하다. 육신이 보고 듣고 접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간다. 육신이 또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접하면 마음의

감지기는 또 달라져 생각을 달리한다.

13. 마음 세계는 육이 보고 듣고 접하는 대로 영향을 받는 단계이고, 혼적 단계는 육에게 “먹어 보아라. 맛이 어때?” 하고 확인하고 행하는 단계다. 마음은 걸 단계요, 혼은 속 단계다.

14. 매일 기도하고 혼적 단계에서는 살아야 된다. 이 단계가 주님과 통하는 단계다.

15. 육적 단계를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새벽 5~6시 정도 되고, 마음 단계는 새벽 4시 정도 되고, 혼적 단계는 새벽 2~3시 정도 되고, 영적 단계는 새벽 1시 정도 된다.

16. 마음대로 사는 자는 마음 차원에서 사는 자다.

17. 주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며 사는 자는 혼적 차원에서 사는 자다. 혼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18. 영적 차원에서 사는 자는 자기 육과 마음과 혼을 지배하고 사는 자다.

19. 혼적 차원에 들어가야 자기 모순이 보인다.

20. 혼적 세계는 육계가 아니다. 영계에 속한다.

21. 마음 세계는 육계에 속해 있다.

22. 예술가의 최고 단계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혼적으로 정신일도 하고 선조의 맥을 끊지 않고 하는 단계다.

23. 도자기를 만들기 전 흙뭉치가 <마음 단계>이고, 도자를 만들어 초벌구이

를 한 상태가 <혼적 단계>이며, 재벌구이를 한 상태가 <영적 단계>다. 혼적 단계만 들어가도 형체가 잡히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24. <육적 단계>는 건물을 사려고 눈으로 본 단계이고, <마음 단계>는 구두 계약 단계이고, <혼적 단계>는 계약금을 준 단계이고, <영적 단계>는 중도금을 준 단계다. 계약금을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고로 적어도 혼적 단계에서만 살아도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25. 마음 단계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변하는 단계다.

26. 변화무쌍한 마음이다. 마음은 마치 감지기 같아서 듣고 보는 대로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누가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 참으로 생각한다. 이같이 마음은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좌우된다. 고로 보고 들었어도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혼적 단계에서 보고 판단해야 된다. 혼체는 영급이라서 겉도 보고 속도 본다.

27. 혼체는 육과 마음, 영 사이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28. 혼적 단계에서 살려면, 매일 근신하고 자기를 지키고 기도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마음 세계의 주관권을 벗어난 삶이다.

29. <마음의 삶>은 시켜야 하는 급이고, <혼의 삶>은 자신이 하는 정도의 삶이다.

30. 혼의 세계에서는 혼체가 육도 보고,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고, 영도 본다.

31. <마음 단계>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단계이고, <생각 단계>는 이리저리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는 단계다. <혼 단계>는 혼체가 보고 느끼고 그 속을 보고서 판단한 것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전달하는 단계다.

32. 육체, 혼체, 영체다.

33. <영>은 왕이고, <혼>은 신하이고, <육>은 백성과 같다.